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문학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현대시 「너에게 묻는다」를 중심으로-

박형준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된 문학교육 내용 요소
3.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한 현대시 텍스트 선정
4. 현대시를 활용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 구성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내용 요소, 등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한국현대시 작품을 중심으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한국문학교육 내용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문학교육 관련 요소를 분석했으며, 3장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격과 방향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논고는 2023년 11월 25일 한국어문화교육학회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한국학 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원고를 전면 수정·보완한 글임을 밝혀 둔다.

한국문학교육 텍스트로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를 선정하였다. 그 근거는, 「너에게 묻는다」의 '분량과 수준', '문학적 표현'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텍스트 선정 기준'에 부합하며,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육 내용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4~6급'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너에게 묻는다」의 교육 내용을 언어-문화-문학 영역 통합적으로 고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단 3행으로 구성된 짧은 문학작품으로도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현대시,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문학교육

1. 서론

이 논문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특징과 내용 요소를 분석하고, 한국현대시 작품을 중심으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한국문학교육 내용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 질문과 그 가능성이 쟁점화되었으며(황인교 2005: 281), 2000년대 이후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들과 관련한 주제 연구가 다채롭게 이루어져 축적되었다(강경희·강승혜 2015: 53).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은 단순히 언어교육의 재료가거나, 문화교육에 필요한 자료라는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비모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언어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양, 지식을 증진하며, 학습자의 개인 성장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렀다(윤여탁 2004; 신주철 2006; 신주철 2013).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언어-문화-문학 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탐구가 양민정(2008), 김금숙(2014), 김정자(2016), 홍명희(2020), 장수현(2022), 박찬홍 외(202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만 학술적 논의와 별개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이 체계적인 틀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모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교육과 달리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체계적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입각해 있지 못한 원인이 크다. 표준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텍스트 선정과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국어교육이 실행되는 국가, 지역, 학교, 교실(한국어교원, 학습자 변인 등) 등의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여주는 게 사실이다. 근자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고시되며,¹⁾ 이에 근거한 한국어교육 과제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긴 했으나,²⁾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입각해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 내용과 방법을 고찰한 연구는 소략한 실정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재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문학작품을 매개로 학습/습득하기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이해’³⁾가 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1)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020-54호로 고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립국어원에서 10여 년에 걸쳐 진행한 1~4단계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며, 교육부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한 KSL, 즉 『한국어 교육과정』과는 구분된다.

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해 한국어교육 각 영역의 방향과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수미·박현진(20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의 내용 선정 및 단원 구성 원리 연구, <우리어문연구> 71, 733-756쪽; 박형준(202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특징과 과제, <배달말> 71, 305-335쪽; 이준호·안정호·이인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해외 대학의 교양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59, 35-63쪽; 윤선숙·송현정(2023).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말하기 영역 성취기준 비교 분석-국제 통용·KSL·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55, 341-363쪽.

어려움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학술적, 교육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문학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토대가 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1~4단계 개발 연구의 문화 영역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 둘째, 문학 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등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에 문학교육에 필요한 텍스트 선정 및 교육 내용(이해/활동)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020-54호로 고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문학교육 관련 요소, 문학작품 선정 기준, 등급별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텍스트 선정 및 교육 내용의 구성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교육 현장과 대중독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대시 「너에게 묻는다」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서 요구되는 핵심 과제인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을 고안해 볼 것이다.

3) 신주철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육의 유의미함은 문학의 본질과 관련한 측면에서 한층 잘 드러난다”(2013: 15)고 보았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삼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언어-문화-문학 영역을 통합적으로 위계화하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 국립국어원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서 잇따른 한국어 교과목 채택… 문체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제정」, 『뉴스1』(2020.11)을 참조할 것.

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된 문학교육 내용 요소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학습자, 교수자, 연구자, 정책개발 전문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교육과정의 층위를 국가, 지역, 학교, 교실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개별 학교나 교실 단위에서 교수·학습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기준이 논의 및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판이 아니라,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한국어교육이 매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으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문학 교수·학습 계획/과정의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국립국어원에서도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십여 년 전부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1~4단계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성과들이 2020년 11월 27일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으로 집약되어 최종 고시되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20: 2)을 증진하기 위해 교수·학습의 표준적 지침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 역시 교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교육의 위상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에서는 ‘문학’을 별도의 학습 영역이나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방향은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 신장에 목적을 둔 ‘텍스트’ 선정과 활용”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 표준 교

5) 박형준(2022: 310-313)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언어 능력)과 상호문

『교육과정』에서 문학은 ‘지식’이 아니라 ‘텍스트’로서의 성격이 가장 중요 시되는 셈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는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1~4 수준으로 나누어진다(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20: 7). 문학교육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해 문학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유형은 “2수준”의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는 ‘문학적 반응을 위한 텍스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래, 연극, 영화, 드라마, 스포츠중계, 오락방송프로그램, 동화, 감상문, 기행문, 수필, 전기문, 시, 소설, 설화, 민담, 희곡”(국립국어원 2017: 192-193) 등의 세부 갈래가 ‘문학적 반응을 위한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방향과 특징은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특징을 고려하면,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은 언어와 문화 교수·학습을 위한 제재, 즉 노래, 연극, 영화, 드라마 등과 마찬가지로 활용 가능한 ‘텍스트’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과 ‘문학작품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수·학습 계획과 활동은 당연히 전자의 차원으로 제한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규범화하고 있는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교육’의 방향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따지는 문제는 생산적 논의를 위한 의제가 되지 못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해외 한국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문학작품을 적확하게 번역하고 그 심미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문학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다만,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문학작품을

화 의사소통 능력(문화 능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텍스트’로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언어와 문화 학습의 도구/제재로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그것은 한국어교육으로서도 유효한 것인가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문학은 텍스트인 동시에 ‘예술’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 지식(“문화 지식”)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텍스트”를 “내용이 담긴 형식과 구조”(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20: 8)라고 해설하고 있다. 문학은 1~4 수준에 포함되는 “장르” 혹은 텍스트 유형 중 하나이며, 문학이라는 “형식과 구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주제” 영역에서 논의된다(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20: 6).⁶⁾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는 문학이라는 텍스트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의 토대 연구 중 최종 심급에 해당하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를 참조하면, 문학은 17개 주제 범주 85개 항목 중에서 “예술” 범주의 세부 항목(문학, 음악, 미술) 중 하나로 6급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등급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7: 25-26). 문학의 경우 일종의 전문적인 학문 혹은 지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주제/등급은 가장 고난도인 6급의 숙달 단계에 배치되어 있다.

즉,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주제는 예술 범주에 포함되는 전문 분야의 내용이며, 문화 영역에서도 “문화 지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 “교수 내용”은 주요한 한국문학작품(시와 소설)과 작가를 이해하고 감상하며, 한국문화에 기반한 상호문화 교수·학습을 위한 비교 텍스트로 제시 및 활용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각 나라의 주요 문학작품 및 작가에 대한 비교·이해”).⁷⁾ 여기에서 한 가지 어

6)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를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텍스트, 언어지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제는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이자 내용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과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말이나 글의 중심 화제를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20: 6)

7) 이는 4단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연구의 문화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려움이 발생한다.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을 위한 내용과 활동은 ‘가장 높은 숙달도’에 기반한 지식 습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문학작품의 주제, 즉 교수·학습 내용이 최상위 수준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 능력(언어교육, 문화교육)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학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는 문학의 실체적 지식과 속성적 지식에 대한 교수·학습이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 문학교육은 언어-문화-문학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 소설, 전래동화, 설화 등과 같은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언어와 문화 교수·학습을 중심축에 놓고 문학 영역과 위계적, 통합적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미국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핵심 목표 역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으나, 언어와 문학은 위계에 따라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ESL의 경우 기본적인 언어 학습 이후에는 문학을 통해 심층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카터와 롱(R.Carter & M.N.Long)의 문학교육 연구 역시 언어모델, 문화모델, 개인의 성장 모델 각각의 특징에 맞는 교육 내용 구성 및 활동을 강조하면서도, 이 세 가지 모델이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결코 배타적이거나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윤여탁 2007: 75-76). 교육의 목표언어가 모국어이든, 외국어이든 문학을 학습 제재로 삼는 경우, 문학의 실체적 지식과 속성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아주 일부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신주철 2013: 234),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실 수업을 진행할 때 언어-문화-문학 통합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천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격과 방향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 텍스트와 내용을 ‘한국현대시’ 장르를 중심으로 고안해 볼 것이다.

3.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한 현대시 텍스트 선정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서 텍스트 선정은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인데, 그 이유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그에 적합한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학텍스트의 선정 관련 연구는 기존의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교재에 수록된 작품 현황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식에서부터 체계적인 문학정전을 모색 및 선정하는 작업까지 다채롭게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5: 21-27)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정전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고려할 요소로 텍스트 변인, 학습자 변인, 과정 변인 등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문학정전 선정 결과를 폭넓은 자료 및 설문 조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심재휘(2016: 104) 역시 대학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교재의 문학텍스트 수록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작품이 주로 설화, 전래동화, 동시 등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현재의 한국어교육 교재에 수록된 문학작품(들)의 경향이 학습자의 수준(숙달도)이나 장르 및 내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근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심재휘 2016: 104)을 발생시키며, 또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이든 문학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이든 파편화된 교육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문학의 역사, 장르, 작가/작품에 관한 지식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문학작품을 제대로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텍스트 선정과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학교육에서만 아니라,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서도 교육과정에 따른 텍스트, 교육 내용 선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필요한 문학작품을 교육과정에 입

각하여 선정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1~2단계),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3단계), ‘적용 연구’(4단계)에 입각한 문학텍스트 선정 및 교수·학습 내용 구안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다.⁸⁾ 그렇다면 한국어 교수·학습 계획의 지침이 되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문학 장르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을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세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읽기 영역(기술 영역)의 “등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 어떤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선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읽기(기술 영역) 등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		
4급	성취기준	4. 복잡한 구조의 설명문이나 단순한 구조의 논설문, 비교적 쉽고 길이가 짧은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다.
5급	성취기준	4. 복잡한 구조의 논설문, 길이가 짧고 전개 구조가 단순한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다.
6급	성취기준	4. 평론, 보고서, 논문 등의 논리적 구조와 형식을 갖춘 글,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다. 5. 비유나 함축과 같은 문학적 표현과 다양한 수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다

2020년에 고시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등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에 필요한 작품 선정의 대략적 기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읽기(기술 영역) 4급에서는 “비교적 쉽고 길이가 짧은 문학작품”, 5급에서는 “길이가 짧고 전개 구조가 단순한 문학작품”, 6급에서는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문학작품”이나 “비유나 함축과 같은 문학적 표현”이 가능한 텍스트를 읽기 영역의 문학작품으로 선정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4~6급의 읽기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작품을 선정할

8) 홍명희(2020: 219-220)는 「현대소설을 활용한 언어, 문학, 문화의 통합적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에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문학작품 선정 방안을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제시한 바 있다.

때 학습자의 숙달도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인데, 그것은 작품의 분량(“길이가 짧은”, “길이가 짧고”)과 수준(“비교적 쉽고”, “전개 구조가 단순한”,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문학작품”), 표현(“비유나 함축과 같은 문학적 표현과 다양한 수사법”) 등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읽기(기술 영역)의 “등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해설서’를 만들거나 세부 지침을 만들 때 한국문학의 역사, 장르, 특징 등을 고려한 상세한 ‘작품 선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새 교육과정을 만들 때 보완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수·학습은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량’, ‘수준’, ‘표현법’을 고려한 문학작품을 교육용 텍스트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⁹⁾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읽기)교재는 대부분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전에 기획/출판한 교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학작품 선정 결과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문학작품의 선정 기준을 일부러 배제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편찬되어 있던 한국어교재를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운 한국어(읽기)교재를 출판할 때는 이러한 문학작품 선정 기준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4~6급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게 교육용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을 구안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이 논고에서는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시를 활용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교수·

9) 예를 들어,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읽기 교재로 사용하는 『연세한국어 읽기』 5권은 ‘9단원 시와 노래’에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수록하고 있으며, ‘10단원 소설 읽기와 치유하기’에 조경란의 「풍선을 샀어」라는 단편소설을 수록하고 있다(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2010: 102-139). 학습활동에도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정주의 시 읽기 활동은 내용적으로 복잡하고, 조경란의 단편소설은 작품 분량이 교재 편집본으로 21쪽에 이른다. 두 작품 모두 현재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제정 및 고시 이전에 교재에 수록된 것이지만, 현재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따르자면 5급 수준(“쉽고”, “단순한”, “복잡하지 않은”)의 문학작품으로 적합한 제재 선정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학습에 필요한 작품 선정과 내용 구안의 한 방안/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작품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전문¹⁰⁾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짧고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적절한 표현법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작품이다. 1970~80년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던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연탄재’라는 어휘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언어-문화-문학 통합적 교수·학습 내용도 갖추고 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를 ‘읽기 영역 4~6급’의 교재 및 단원 구성시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가 감상/학습할 문학작품으로 선정한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이 작품의 ‘분량과 수준’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읽기 4급에서는 “비교적 쉽고 길이가 짧은 문학작품”을, 5급에서는 “길이가 짧고 전개 구조가 단순한 문학작품”을, 6급에서는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문학작품”을 교육용 텍스트로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너에게 묻는다」는 전문(全文)이 단 3행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길이가 매우 짧으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그 근거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가 되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록 1>의 ‘어휘 평정 목록’에서는 “연탄”, “함부로”와 같은 어휘가 중급인 “4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국립국어원 2017: 365-376), 연결어미 ‘~이라도’와 표현 ‘~느냐’는 ‘3급(중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 마라’의 경우 5급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있다(국립국어원 2017: 457-459). 즉, 「너에게

10) 안도현(1994). 너에게 묻는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문학동네, 13쪽.

묻는다」는 4~6급 읽기 학습자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작품의 주제를 만드는 시의 전개 구조 역시 '1행의 명령문("발로 차지 마라")'에서 '3행의 의문문("뜨거운 사람이었느냐")'으로 이어지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너에게 묻는다」는 '문학적 표현'의 측면에서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 읽기 6급의 목표 및 성취기준에는 "비유나 함축과 같은 문학적 표현과 다양한 수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는 일상어인 "연탄재"에 함축적 의미(희생)를 부여하고 있으며, 3행의 의문형 종결표현은 '설의적 표현', 혹은 '수사적 의문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학적 수사법이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질문이 가닿는 대상에 따라 반성의 주체는 시의 화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불특정 독자가 될 수도 있다.¹¹⁾ 두 경우 모두 이 작품의 주제를 성찰과 반성으로 견인하는데, 특히 비판적 자성의 목소리가 시의 화자 자신에게로 향할 때, 3행의 종결표현("~사람이었느냐")을 고양하는 '수사적 의문법'¹²⁾의 효과는 강화된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는 일상적인 어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읽기 6급의 성취기준에도 두루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여기에 한 가지 더해, 「너에게 묻는다」는 모국어 기반 한국문학 교육(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한국어교육)의 장(場)에서도 무게감 있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짧은 문학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 교수·학습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육 내용 구성에도 적합하다. 한국의 동아, 비상, 천재 등의 출판사에서 발행

11) 「너에게 묻는다」가 처음으로 수록된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의 해설을 쓴 이성욱 역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너'는 이 시집을 읽는 당신일 수도 있고, 시라고는 특히나 이런 시라고는 안면도 익혀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너'는 아무래도 시인 자신과 그 시인과 유사한 삶의 유적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인 듯하다."(안도현 1994: 131)

12) 오규원은 『현대시작법』에서 "수사적 의문법"은 "응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의 행태가 아니며, "질문이라기보다 질문의 형식을 빈 주장"이라고 보았으며, 그것은 "주장 또는 느낌을 직접 진술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한 수사법"(1993: 375)이라고 보았다.

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우리가 눈발이라면」(동아, 비상), 「너에게 묻는다」(천재) 등의 작품을 수록하였으며,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교재에도 「연탄 한 장」(미국 교재 2회, 중국 교재 3회), 「우리가 눈발이라면」(중국 교재 3회), 「너에게 묻는다」(중국 교재 3회)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¹³⁾ 또 이 시의 저자는 한국문단과 대중독자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24년 10월 '나무위키' 검색 결과(<https://namu.wiki>), 그는 “대한민국의 시인”이자 “현대 문학인 중 가장 대중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문학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어 있다. 즉,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문학 교수·학습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놓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문화 지식’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내용(“한국의 주요 문학작품과 작가”)에 해당하는 작가이자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텍스트 선정 기준과 특징을 고려하면서 현대시 「너에게 묻는다」를 중심으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실제 ‘내용 구성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4. 현대시를 활용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 구성

이 장에서는 현대시 「너에게 묻는다」를 활용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 교육의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의 구성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해 볼 것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는 문학교육과 관련한 목표 및 성취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사고, 경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고안은 통상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목표 및 성취기준에 입각하여 「너에게 묻는다」를 텍스트로 선정한 후 언어-문화-문학 각 영역의 교육 내용 및 통합 교육 내용을 문헌 조사와 탐구

13) 이 부분은 윤여탁·유영미·박은숙(2015: 21-27)의 조사 결과를 참조할 것.

과제 활동을 통해 마련하는 작업이다.¹⁴⁾ 2단계는 교육과정 분석, 텍스트 선정, 교육 내용 마련 절차를 통해 구성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을 실제 수업으로 진행하고 그 경험 및 결과를 기록, 수정, 보완하여 학습자의 반응/요구를 반영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일반화하는 작업이다.¹⁵⁾

위의 두 단계는 사례 연구의 대상, 내용, 절차,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 논고에서는 1단계 연구, 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 선정 기준, 읽기 영역의 목표 및 성취기준에 입각하여 한국 현대시 「너에게 묻는다」를 교육용 텍스트로 선정하고, 이를 교수·학습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사례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본 연구자는 2022년 2학기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에서 ‘한국문학교육론연구’라는 강좌를 운영했으며, 교수자 강의와 논저 강독을 통해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방향이 크게 언어-문화-문학 영역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주체적으로 현대시의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논고의 2~3장과 같은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텍스트로 선정했다. 그리고 교육용 텍스트로 선정된 문학작품을 여러 차례 함께 읽고 언어-문화-문학 교육 요소가 무엇인지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함께 분석 및 검토했다.¹⁶⁾

14) 진대연(2018: 222-266)은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역사문화 교육 내용의 모형을 제시한 후 그에 맞는 역사문화 내용 구성의 예를 제시한 바 있다. 본 논고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학 요소, 읽기 영역 목표 및 성취기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15) 2단계의 수업 사례를 중시하는 연구 방법은 “학생의 문제행동의 특성과 원인”을 찾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다양한 교육적 의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1986: 258). 실제로 한국어교육에서도 다채로운 수업 사례 접근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엮어 출판한 윤여탁 외(2021)에서는 외국인인을 위한 현대시교육과 문화교육 관련 수업 사례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16) ‘한국문학교육론연구’ 수강생은 26명이며, 필자는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방법, 평가 항에 대한 강의와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 탐구 과제의 경우,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시를 제재로 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이해, 활동)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자와 대학원생들이 제시한 언어-문화-문학 교수·학습 내용의 응답 및 토의 결과 중에서 중복되거나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채택된 교육 내용/결과를 언어, 문화, 문학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초에 발표된 「너에게 묻는다」는 일상적 어휘와 문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언어교육) 향상을 중심에 놓고 문화와 문학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가능하다.¹⁷⁾

언어	언어 교수·학습 목표		「너에게 묻는다」의 기본 어휘를 정리하고 ‘~지 마라’의 문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언어 교수·학습 내용		통합 교수·학습 내용 요소	
			문화	문학
	어휘	연탄재	○	○
	어휘	함부로		
	어휘	발로		
	문법	~차지 마라(~지 마라)	○	
	어휘	너는		
	어휘	누구에게		
	어휘	한 번이라도		
	어휘	뜨거운		
	문법	사람이었느냐		○

※ 교재 구성시 학습활동 : 본문 읽기와 연계하여 ‘~지 마라’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활동 문항을 제시할 것

「너에게 묻는다」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길이」가 짧고 전개 구조가 단순하다. 또한 『한국어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를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이 논의 과정 및 성과를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학계에 보고하기로 동의를 구하고 개별 논문 작성에 착수했다.

17) 각 표의 「통합 교수·학습 내용 요소」에 ‘○’ 표기는 통합형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내용 구성이 가능한 부분을 체크한 것이다.

표준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부록 1〉 어휘 평정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시에 나오는 ‘연탄재’, ‘함부로’, ‘~이라도’, ‘~느냐’와 같은 어휘, 문법, 표현 내용은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수준(4~6급 읽기)을 초과하지 않는다.¹⁸⁾

한국현대시의 교육 내용을 고안하기 위한 대학원 탐구 과제에서 「너에게 묻는다」의 ‘언어 학습활동’으로 가장 많이 기술된 것은 ‘~지 마라’이다. 그 이유는 ‘~지 마라’의 기본형인 ‘~지 않다’가 ‘토픽’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초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문형/표현의 제약 정보인 ‘~지 마라’는 5급 수준에 해당하는 ‘고급’ 표현 및 용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¹⁹⁾ 그렇다면 「너에게 묻는다」의 언어 교수·학습 내용은 기본 어휘를 정리한 후 학습활동을 통해 고급 수준의 문법 및 용법(‘~지 마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어휘 학습은 자연스럽게 문화, 문학 영역과 통합될 수 있다. 핵심 어휘 ‘연탄재’는 ‘연탄’과 달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부록 1〉 어휘 평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연탄재’는 새로운 학습 단어일 뿐만 아니라, 1970~80년대 한국 산업화 시기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이기도 하다.²⁰⁾ 또한 ‘연탄재’는 상징적 표현이 담긴 시어로 문학의 돌려 말하기 기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문화-문학 통합적 교수·학습에 적당하다. 그리고 ‘~(이)었느냐’는 중급(3급) 수준의 문법 및 표현이지만, 이 작품의 전체 구조 및 주제와 연결시켜 해석할 경우 시적 화자의 정서 및 주제 강조

18) 「너에게 묻는다」에서 사용된 시어는 대부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국립국어원 2017)에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록 1〉 어휘 평정 목록”의 ‘언어 지식’ 내용 중 중·고급 문법·표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19)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n.go.kr>)의 문법·표현 내용에 따르면, ‘~지 마라’는 ‘~지 않다’를 기본형으로 하며, “어떤 행위 및 상태의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지 않다’의 제약 정보로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지 말다’를 쓴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 “(예) 수업에 늦지 마라. (o) 수업에 늦지 마. (o)”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웹사이트 ‘문법·표현 검색’ 내용을 참조할 것.

20) 연탄재를 발로 차는 행위(시에서는 “발로 차지 마라”)는 1970~80년대 한국 산업화 시기의 골목문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언어-문화 통합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성 가능하다.

효과를 만들어내는 문학적 표현(수사적 의문법)으로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너에게 묻는다」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한국어 상호문화 능력(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학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이 가능하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는 문화교육의 내용 범주를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으로 나누고 있는데,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확장 요소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연탄재’라는 핵심 시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문화 교수·학습 목표	「너에게 묻는다」의 시어 ‘연탄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주거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문화 교수·학습 내용		통합 교수·학습 내용 요소
				언어
				문학
문화	문화 지식	연탄 어휘 및 문화 이해 -한국인의 주거생활양식 이해 -한국의 근현대사 이해		○
	문화 실행	연탄 연계 문화 체험 활동 -연탄 사용 음식점 방문(연간) -탄광마을 견학 및 체험(연간)		
	문화 관점	연탄 연계 비교문화 활동 -각 나라 주거생활양식 비교 -각 나라 연탄 활용 사례		
	※ 교재 구성시 학습활동 : 시어 ‘연탄재’ 등 본문 읽기와 연계하여 한국의 주거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활동 문항을 제시할 것			

연탄재라는 시어를 중심축에 놓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 범주의 교육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 지식 범주에서는 연탄(재)에 대한 학습활동을 통해 문화 지식을

이해하는 내용 구성이 가능하다.²¹⁾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는 이 내용을 중고급 수준의 숙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어휘 학습과의 연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 실행 범주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행사, 견학 등의 내용”(국립국어원 2017: 199)을 다루어야 하는데, “한국의 온돌 문화 경험해 보기”,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양식 경험해보기” 등을 교수 내용의 예로 기술하고 있다. 「너에게 묻는다」를 활용한 문화 실행 교수·학습의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 음식점 혹은 탄광마을 체험과 견학 활동을 교재에 포함할 수 있다. 견학과 체험은 “최소한의 한국어 사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 중, 고급 학습자 모두 참여가능하다. 다만, 연탄 활용 음식점과 탄광마을 방문은 여러 가지 조건상 쉽지 않으므로, 이 교수 내용은 연간 교육 활동 및 과제로 제시하여야 한다. 문화 관점 범주에서는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각 나라의 주거 생활양식에 대한 비교·이해” 활동을 교수 내용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너에게 묻는다」의 경우 연탄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주거생활양식, 음식문화 등을 상호 비교하는 ‘문화 학습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너에게 묻는다」는 문화를 중심으로 언어, 문학 영역과 통합적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이 작품의 핵심 어휘가 되는 ‘연탄재’는 연료의 하나이지만,²²⁾ 문화 지식의 차원에서는 한국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문화적 용법인 동시에 한국의 주거생활문화나 음식문화 등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연탄재’는 단순히 “연탄이 다 타고 남은 재”, 즉 폐기물이 아니라 겨울철 행인들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리에 뿌렸던 소금, 염화칼슘, 모래 등의 대체품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문학적 해석이 덧붙여진다. 연탄재는 쓸모를 다한 폐연료이거나 염화칼슘의 대체재만 아니라, 이 시의 주제를 함축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연탄재는 연료로써의 쓸모를 다한 후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2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주거생활양식(좌식, 온돌 등)”,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 중에서 1970~80년대와 같은 특정 “시대”(국립국어원 2017: 201-202) 등이 문화 지식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2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어휘 문법 등급 목록’에는 어휘 “연탄”과 길잡이말 “연탄을 나르다”가 4급(중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연탄재라는 어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물 혹은 존재로 고양되기 때문이다. 그런 연탄재를 발로 차는 ‘너’는 그것과 대비되며 문학적인 효과(성찰과 반성)를 창출한다.

셋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6급의 목표 및 성취기준 (“비유나 함축과 같은 문학적 표현과 다양한 수사법에 대한 이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표현과 수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 역량을 극대화할 수 교육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	문학 교수·학습 목표	「너에게 묻는다」의 전개 구조를 이해하고, 이 작품의 문학적 표현과 수사법을 말할 수 있다.		
	문학 교수·학습 내용		통합 교수·학습 내용 요소	
			언어	문화
	1행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 연탄재 상징적 표현 이해 활동 - 일상언어와 문학언어 이해	○	○
2행	너는 - ‘너’의 다양성 및 중요성 이해 -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 이해	○		
3행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수사적 질문법 이해 및 활용	○		

※ 교재 구성시 학습활동 : 본문 읽기와 연계하여 문학적 표현과 수사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 문항을 제시할 것

주지하다시피,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핵심 어휘는 ‘연탄재’이다. 연탄재는 ‘연탄+재’로 이루어져 있는 어휘이며, 이는 일상언어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시어가 ‘연탄=쓸모 있음’, ‘연탄재=쓸모 없음’으로 해석되면서, 이 일상언어는 문학언어로서 다채로운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 해석과 확장은 ‘너’와 ‘연탄재’가 대비되면서 시적 화자에 대한 반성과 촉구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너는”이라는 표현을 시인이 두 번째 행에 독자적으로 배치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 작

품의 언어 사용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급(초급) 어휘에 해당하는 ‘차다’와 5급(고급) 문법에 해당하는 ‘~지 마라’를 단순히 결합하여 읽는 것만이 아니라, 1행의 ‘연탄재’와 2행의 (연탄재를 차는) ‘너’가 왜 대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3행에 이르러 ‘연탄재’의 자기희생적 태도와 대조되는 ‘너’(2행)의 이기적 태도에 대한 간접 비판 및 자성 촉구로 이어진다는 전개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마지막 행에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수사적 질문법(혹은 설의적 표현)은 주제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수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학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²³⁾

시 「너에게 묻는다」에는 새로운 조어나 난해한 표현이 없다. 이는 문학 영역을 중심에 놓고 언어 및 문화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때 어떤 텍스트를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일상언어와 문학언어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의 언어는 일상어의 풍부한 용례이자 정확하고 적절하며 효율적”이어서 “개성적”(김대행 외 2003: 39-53)인 한국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증진하는 문학의 통합적 기능과 맞닿아 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6급의 목표 및 성취기준(“비유나 함축과 같은 문학적 표현과 다양한 수사법에 대한 이해”)은 문학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언어교육(“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화교육(“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는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언어-문화-문학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매체(음악, 비디오 등)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문화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로서 음악, 낭송, 영상 등과 같은 장르, 매체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2024년 10월 현재 유튜브

23) 실제로, 「너에게 묻는다」의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과제 피드백에서도 1행과 3행의 상징적 표현과 문학적 수사법에 대한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에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낭송 영상이 10편 이상 서비스되고 있으며, 또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한 김현성이 곡(曲)을 입히고 편곡하여 부른 「너에게 묻는다」라는 노래도 있다.²⁴⁾ 이 노래는 “백석 시인탄생 100주년 기념음반”에 수록되어 있는데, 시의 언어를 고스란히 살리면서 경쾌한 곡을 입혔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는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문학작품을 매개로 매체 변주와 활용이 가능한 텍스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선정하고, 언어-문화-문학 통합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입각한 문학작품 선정 및 교육 내용(재)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해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현재 편찬되어 있는 한국어교재에 수록된 문학텍스트를 학습자의 수준(등급), 적절한 분량, 통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작업 역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5. 결론

2020년 12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내용 요소, 등급별 목표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한국현대시 작품을 중심으로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한국문학교육 내용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4) 안도현 시, 김현성 곡·편곡(2012). 너에게 묻는다, <백석 시인탄생 100주년 기념음반>, 노래의 인문학.

먼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문학교육 관련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은 언어와 문화 교수·학습을 위한 제재, 즉 노래, 연극, 영화, 드라마 등과 마찬가지로 활용 가능한 ‘텍스트’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둘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문학은 텍스트인 동시에 ‘예술’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 지식이기도 하다. 셋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은 언어-문화-문학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격과 방향에 입각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 텍스트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현대시 「너에게 묻는다」를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학교육 내용에 부합하는 제재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를 선정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 작품의 ‘분량과 수준’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의 목표 및 성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둘째, 「너에게 묻는다」는 ‘문학적 표현’의 측면에서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 셋째, 「너에게 묻는다」는 단 3행으로 구성된 짧은 문학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시사하고 있는 문학작품 선정 기준 및 목표,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언어-문화-문학 통합형 교수·학습 내용을 구안해 보았다.

참고문헌

- 강경희·강승혜(2015). 한국어문학교육 연구 현황과 동향 분석, <언어와문화> 11(2), 29-64쪽.
- 국립국어원(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2020).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 김금숙(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행 외(2003).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자(201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교육론, 박이정.
- 김지혜·이인혜(20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32(2), 63-88쪽.
- 박찬홍·이경훈(2023).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통합 교육 방안: 김동리 소설 <바위>를 중심으로, <인격교육> 17(1), 105-124쪽.
- 박형준(202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반영된 외국어로서 한국문학교육의 특징과 과제, <배달말> 71, 305-335쪽.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86). 교육학용어사전, 하우.
- 신주철(2006).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의 위계별 교수사례안, <한국어교육> 17(2), 135-155쪽.
- 신주철(2013).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문학교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심재휘(2016). 한국어교육과 문학텍스트, <국어교육학연구> 51, 93-127쪽.
- 양민정(2008). 외국인을 위한 고전기사 활용의 한국어/문학/문화의 통합적 교육-「動動」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37-261쪽.
- 오규원(1993).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 윤여탁(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 윤여탁 외(2021).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시교육과 문화교육, 도서출판하우.
- 장수현(2022). 한국어 통합교육을 위한 현대시조 활용 방안 연구, <인문사회21> 51, 2915-2930쪽.
- 진대연(2018). 한국어교육에서 역사 문화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5(3), 243-270쪽.
- 최혜령(2015). 사례연구법을 적용한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모형 개발, <한국어교육> 26(3), 267-285쪽.
- 홍명희(2020). 현대소설을 활용한 언어, 문학, 문화의 통합적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31(1), 207-309쪽.
- 황인교(2005). 문학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필자 소개

성 명 박형준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주 소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D동 528호 교수연구실
전자우편 corea@bufs.ac.kr

Abstract

Study on the Content Composition Plan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based on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Curriculum” - Focusing on the Modern Poem “I Ask You” -

Park, Huyug-ju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tent elements, grade-specific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presented in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and to suggest a plan for organizing integrated language-culture-literatur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content centered on modern Korean poetry. First, the literature education-related elements reflected in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were analyzed, and in Chapter 3, Ahn Do-hyun’s “I Ask You” was selected as a text for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based on the natur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volume and level” and “literary expression” of “I Ask You” meet the “text selection criteria” of the “reading section” of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and it is possible to organize integrated language-culture-literature education content. In Chapter 4, the educational content of “I Ask You” was design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the areas of language, culture, and literature based on the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Reading Area Levels 4-6” of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organize content that maximizes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and Korean literature capabilities of Korean learners even with a short

literary work consisting of only three lines.

|Key words|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standard curriculum, modern poetry, An Do-hyun, “I ask you”, integrated literature education in language-culture-literature

투고일 2024. 10. 28 / 심사일 2024. 11. 19 / 게재확정일 2024. 11. 19

